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제한점
4. 용어 정의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남북한 사회는 그동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구조적 사회문화 변동을 경험하면서 양 사회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상이한 문화구조와 생활양식, 그리고 가치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청소년들 역시 우리의 청소년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기성세대와는 달리 그들만의 독특한 가치 정향과 청소년문화를 형성·발전시켜 나가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에서 그 사실관계를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사회의 경제난 가중과 서구 자본주의적 문화 행태들이 일부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북한청소년들이 자본주의 생활양식을 일부 접함에 따라 사상과 도덕관이 크게 변화되고, 각종 범죄행위의 증가, 자유분방한 음악, 영화 등의 선호, 그리고 조직생활의 일탈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과거와 달리 북한청소년의 문화와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청소년들의 문화와 일상생활의 변화 단면은 결코 그 자체로만 이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980년대 말이래 북한 사회 변화의 징후로서 지적될 수 있는 현상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진행되고 있다 하겠다. 예를 들면 1990년대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주의 헌법을 비롯한 북한법의 일부 수정·개선[1] 및 신설[2]은 북한 사회 변화를

1) 북한은 1992년에 북한형사소송법의 인권관련 규정(4조와 174조)을 일부 수정·개선하였으며, 1998년 개정헌법에서는 인권관련 조항(86조)을 부분 수정하였다.
2) 1998년에 개정된 북한 사회주의헌법은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제75조)"라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법적 측면에서 반영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를 통해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사회적 일탈행위로 뇌물수수·물자유용 등의 부정·부패행위, 횡령·절취·암거래·매매춘 등의 생계형 범죄행위, 국경지역으로부터의 자본주의 '황색바람' 확산, 주택 불법 전매 및 노동자 태업·도박·장사 등의 비사회주의적 행위 증가, 자유연애와 혼전·혼외 임신 등의 성의식 문란행위, 그리고 무속행위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 사이에 확산되어 가고 있는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은 복권과 계의 성행, 잡상인 및 자영업 종사자의 증가 등에서도 엿볼 수 있다. 복권은 북한당국이 '통화환수'를 위해 1990년대 초부터 정책적으로 발매해 온 것이나 최근에는 거의 일반화되었으며, 관계기관에서는 복권 판매 활성화를 위해 홍보 활동을 하는 정도이다.[3] 종래 북한당국은 계모임을 "종파분자들이 끼리끼리 모여 수령의 영도적 권위와 당의 혁명전통, 당의 노선과 정책을 헐뜯는다"라는 이유로 금지해 왔으나, 최근에는 생활고를 겪는 주민들의 자구책으로 간주하고 묵인하는 편이다. 또한 잡상인은 주로 열차내에서 활동하며, 의료인에게 뇌물을 주고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아 불법으로 퇴직한 후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로 사진찍기, 밀주제조 등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주민들의 실제적 변화 외에도 2001년 연초에 김정일총비서의 '신사고' 발언과 함께 여러 가지 양상의 사회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난 1980년대 말이래 지속되고 있는 북한 사회 변화의 내용 및 추세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하겠다. 즉, 1980년대 말 이후 '사회주의 생활양식'이 아닌 '자본주의 생활양식'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폐쇄적이기보다는 개방적인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경직성보다는 유연성을 띠고 있다 하겠다.

---

3) 복권은 기본적으로 재정난 타개를 위한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나 경제난이 악화됨에 따라 주민의 불만 무마 차원에서 더 활성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이러한 북한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인 청소년들의 문화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당이 공식 지향하는 가치인 당과 수령의 뜻 관철, 국가와 사회, 집단과 인민을 위한 헌신보다는 자신의 삶과 물질적 가치를 중요시하며, 규격화된 획일적·폐쇄적 생활보다는 점차 유연성 있고 다양한 개방적인 삶을 지향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추세는 최근 북한청소년들 사이에 기타연주가 유행하고 있으며, 컴퓨터와 영어교육에 대한 열기가 높다는 사실에서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사이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교원들 말도 안듣는 '불량학생'이 늘고 있다"(좋은 벗들, 2000 : 464)는 현상에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또한 적발되면 '무조건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엉덩이춤'(디스코)을 추며, 금지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기르고 장 마당에서 청바지와 외국글씨가 써있는 옷을 구해 입는다고 하는 사실에서도 북한청소년들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이외에도 북한청소년 문화생활의 변화와 다양화를 엿볼 수 있는 것으로 평양 '청년중앙회관'과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등에 전자오락기[4]와 노래방 등의 오락시설 구비, '평양바둑원'[5] 개원, 평양에 선술집 등장과 생맥주공장 건립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변화되고 있는 북한청소년들의 실태 중 가장 일반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 패션, 화장 등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예전과는 달리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는 북한청소년들의 의식을 엿볼 수 있

4) 전자오락은 1980년대 말부터 평양을 중심으로 파급되기 시작했으며, 1992년 김정일의 적극 권장 이후 점차 청소년 놀이문화로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5) 북한에서 바둑은 대외교류 및 외화 획득을 위한 정책종목이었을 뿐 주민들에게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비효율적인 스포츠'라고 해서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나, 최근 들어 북한은 '권장할 만한 두뇌 스포츠'라고 하여 바둑을 대중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변화되고 있는 북한청소년들의 실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청소년문제·비행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이것은 북한 사회의 경제난 악화에 따른 가족해체, 교육붕괴, 그리고 도덕적·윤리적 질서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과정속에서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북한청소년들 사이에 만연되고 있는 폭력과 더불어 중요한 청소년 문제행동으로 판단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흡연과 음주를 들 수 있다. 탈북청소년들은 흡연과 음주는 대개 인민학교나 고등중학교 중등반 시기에 시작하며 청진, 함흥 등과 같은 일부 지역의 북한청소년들은 그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전한다. 흡연과 음주는 북한의 남자 청소년들에게는 폭력과 동일하게 일종의 사회적 탈출구로 작용하고 있어, 그들만의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며, 절대체제 속에서 나름대로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청소년 공간을 갖기 위한 도구로 보여진다.

이외에도 북한청소년들은 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불법적인 장사를 하기 위해 또는 가족 내에서의 심한 갈등 등으로 인해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가출하여 전국을 돌아다니거나 또는, 중국 등으로 탈북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처럼 북한청소년들은 1980년대 말이래 사회변화와 맥락을 같이 하며 그 문화와 일상생활 영역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변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요인은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과 부분적·제한적 체제개방에 따른 외부사조 및 문물의 침투 등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경제난 해소가 장기화되고 경제난 해소를 위해 체제개방이 확대된다면 청소년들 역시 가치관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북한청소년의 문화와 일상생활 등은 북한의 체제이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포괄적인 양상을 띠면서 쉽게 변화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북한청소년의 변화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북한의 사회문화 변동과 관련한 북한청소년들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여 진정한 미래의 사회통합을 준비하는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변동이론에 기초하여 북한의 사회문화적 변동의 성격을 규명하고,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을 비롯한 북한법의 수정·개선 내용을 고찰하여 사회문화 변동과 연계한 북한청소년의 문화와 일상생활 실태를 살펴보는데 있다. 또한, 이러한 내용에 기초한 북한청소년의 변화와 한계를 전망하여 우리사회 및 국제사회 차원의 다양한 대책을 구안하는데 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우선 사회변동의 개념과 관련된 제논의를 통하여 사회변동의 기제로는 무엇이 있고, 그 변동의 유형은 어떻게 분류가능하며, 한 사회의 문화는 접촉과 갈등을 통하여 어떻게 변용되는가를 북한의 사회체제에 적용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북한의 문화·예술정책에 기초한 사회변동과 청소년의 상관성을 고찰하고, 앞의 이론적 논의에 더하여 가치와 규범, 생활문화 등으로 분류하여 북한청소년의 문화와 일상생활 실태를 각 영역별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최근 들어 그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는 북한의 사회문화 변동에 따른 청소년 변화와 그 한계를 전망하고 우리사회 및 국제사회 차원의 대책을 구안하였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1) 사회변동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사회변동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하여 제학자가 주장하고 있는 변동의 개념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먼저, 사회변동을 "사회구조들의 유의미한 변화"라고 규정한 윌버트 무어(Wilbert Moore)의 정의, 그리고 "인간관계들의 기존 유형들과 행위의 기준에 있어서의 어떤 변형"이라고 규정한 런드버그 등의 정의에 초점을 맞추어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변동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변동을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과 '진화'나 '퇴화'의 '결과'로 보는 입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또한, 사회변동을 촉발하는 요인과 메커니즘, 즉 변동의 기제를 고찰하기 위하여 갈등, 도전, 관념, 인구학적 요인, 물질적 모순, 개인들의 내적 상태, 사회체계와 관련한 여러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회변동의 유형에 대해서는 진화, 전파(확산) 및 문화변용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 북한의 문화·예술 정책에 기초한 사회변동과 청소년의 상관성 분석

북한의 문화·예술 정책은 북한의 사회변동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북한청소년들의 문화와 일상생활 변동과 어떤 상관성을 갖는가를 고찰하기 위하여 수령·당·국가시스템, 북한의 행정체계와 특징, 그리고 북한의 문화·예술 행정체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북한 문화·예술 정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의 관련 법령과 김일성·김정일 관련 교시 내용을 분석하고, 이러한 정책, 법령, 교시 등의 영향력 하에 있는 북한의 대중문화와 청소년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3) 북한청소년의 문화와 일상생활 실태 고찰

북한청소년들의 가치·규범 문화는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념과 그의 영향 하에 놓여있는 통일관, 국가관·민족관, 그리고 개인·자아관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북한청소년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가정생활과 여가생활 실태를 살펴보았다. 특히, 여가생활은 한국을 비롯한 서구세계의 부분적 문화 유입에 따른 대중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고, 그들이 자주 접하는 시, 소설 등과 같은 문학작품을 통해 나타나는 문화관 등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 교급별로 교과과정 이외의 방과후 활동 실태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북한청소년들의 일탈 행동 실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4) 북한청소년의 변화 전망과 대책 구안

북한 사회의 변동과 이에 따른 주민 및 청소년들의 변화에 작용하고 있는 요인은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 및 청소년들의 가치관 변화에 직접적 계기가 되어 상호 연관성 있게 작용한 요인은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 악화와 부분적·제한적 체제개방에 따른 외부 사조 및 문물의 침투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앞에서 살펴본 북한 사회와 청소년들의 문화 및 일상생활 실태에 기초하여 그 변화와 한계를 전망했다. 동시에 이러한 북한 사회의 변동은 식량난 등에 기인한 인권상황 악화, 탈북자의 급증에 따른 국제사회와 우리사회내의 처리·보장책 미비, 중국을 통한 북한내 유해문화의 유입에 따른 대책 부재 등과 같은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와 관련된 종합대책을 구안하여 제시하였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2)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북한의 사회문화적 변동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회변동의 개념 및 기제, 그리고 변동의 유형 등을 논의하고 법령, 교시 등 북한의 문화·예술 정책 등을 고찰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2) 전문가 자문

연구 목차 구성 및 내용 검토와 북한의 사회문화 변동에 따른 청소년의 변화와 그 한계를 전망하고, 우리사회 및 국제사회 차원의 다양한 대처방안을 구안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3) 심층면접 조사

북한의 사회변동 실태 및 이에 따른 북한청소년의 문화와 일상생활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기 위하여 탈북자(성인, 청소년) 대상의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북한청소년의 문화와 일상생활 관련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그 접근이 제한적이며, 그 자료 또한 대부분 시기적으로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과거 시점의 자료에 편중되어 있는 관계로 연구 수행에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북한청소년의 문화와 일상생활 실태는 탈북자(성인 및 청소년) 대상의 심층면접 조사 결과에 주로 의존하였는데, 과연 그 결과를 전체 북한청소년의 모습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심층면접 대상자를 표집하는 과정에서 지역, 계층, 연령, 성별 등과 같은 요인을 최대한 고려하였으나, 주로 대도시(평양, 청진, 원산 등)에 편중된 감이 있고, 그 연령 또한 20대를 전후한 연령대로 초·중·고 학령기에 해당하는 연령층이 적다는 한계가 노출되었다.

둘째, 최근의 북한청소년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교적 남한 거주 기간이 짧은 탈북자를 면접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의사소통의 문제로 3년을 전후한 탈북자에 표집 대상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 입국 연도가 3년전 일지라도 중국에 체류한 기간을 고려할 때 당초의 탈북 연도는 더 길어진다는 점에서 최근의 북한청소년 생활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셋째, 북한의 사회변동 과정에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제보다도 청소년의 문화와 일상생활에 비교적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중심으로 그 실태와 변화를 전망하여 북한의 사회변동을 종합적으로 천착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넷째, 북한청소년의 문화와 일상생활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요 항목들이 많았으나, 심층면접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의 문제로 일반적 항목을 중심으로 그 실태가 기술되는 한계를 가졌다. 또한, 그 실태 기술에 있어서 심층면접 결과를 통하여 확인된 내용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흔히 논문에서 많이 사용하는 자의적·조작적 분석을 최소화하였다.

이상과 같이 많은 연구의 제한점이 노출되었으나, 본 보고서에서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기술된 북한청소년의 문화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자료들은 북한청소년을 이해하고, 그와 관련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적 자료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용어 정의

1) '탈북자'와 '귀순자'

'탈북자(脫北者)'라는 단어가 고유명사처럼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94년의 일이다. 이전에는 보통 '귀순자(歸順者)'라는 표현을 써왔다. 귀순의 사전적 의미는 "반항하거나 반역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 돌아서서 따라오거나 복종함"으로, 귀순이라는 말에는 체제 대결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탈북은 말 그대로 북한을 탈출하였다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로서, 이것은 단순한 어휘의 변화가 아니라 몇 가지 상황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귀순에서 탈북으로의 전환은, 탈북이 곧 귀순으로 통하던 상황의 변화를 뜻한다. 과거에 북한을 탈출했다는 것은 남한으로의 귀순을 의미했으며, 입국 방법도 휴전선 월경, 유학·사업 도중 한국대사관에 망명요청, 선박·항공기를 통한 월남 등이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탈북이란 대부분 '북-중 국경을 통한 탈출'을 이르는 말로, 처음부터 남한으로의 귀순을 의도한 탈북이라기 보다는 식량난을 피해 먹을 것을 찾아 일단 북한 땅을 떠나고 보는 '난민(難民)'의 성격이 짙다.

따라서 체제에 염증을 느꼈다든지 북한 정권이 반동적 행위로 규정한 죄를 지었다든지 하는 정치적 이유가 많았던 과거와 달리, 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탈북자들은 "북한의 체제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먹을 것만 충분히 보장해 준다면 다시 돌아가겠다"는 사람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탈북자 중에는 조선족 친척에게 식량과 돈을 구한다든지, 일을 해 돈을 벌어 북한으로 돌아갔다가 사정이 어려워지면 다시 탈북하는 사례도 많아, 10여회 이상 탈북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물론, 이는 아주 특수한 예로서 대부분의 경우 입국(북한)하는 과정에서 체포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6] 최근에는 워낙 탈북자들이 많아 단순한 경제적 이유의 탈북자인 경우 몇 개월 정도의 노동단련대에 보내지는 정도로 과거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지만, 중국에서 종교인이나 NGO 관계자, 남한 사람을 만난 경우에는 정치범으로 엄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일부 탈북자들이 주중 외국공관에 진입하여 한국으로의 망명을 요청하고 국경지대에서 탈북자들에 의한 범죄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과거에도 중국 공안당국의 탈북자 색출과 체포·송환이 많긴 했지만 최근 국경지대에서 탈북자들을 찾아보기 힘들만큼 많은 사람들이 체포·송환되었다. 따라서 최근 중국 내 탈북자들은 식량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보다는, 외부세계의 소식을 알게 되면서 중국에 영구 정착하거나 한국으로의 망명을 바라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탈북의 또 다른 특징은 그 대량성에 있다. 탈북자 문제를 연구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그 전반적인 규모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인데, 숨어 지내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6) 탈출보다 어려운 것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탈북이야 국경수비대의 감시를 피해 일단 강만 건너면 북한 쪽에서 눈에 띄어도 어찌할 수 없는 외국 땅이기 때문에 국경 사정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수비대의 틈을 피해 숨어 들어가 중국 쪽을 향해 뛰면 되지만, 입국하는 것은 몇 배의 어려움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 당국이 국경경비를 철저히 하고 국경수비대와 탈북자 사이의 밀거래를 감찰하면서 탈북 후 입국이 대단히 어려워졌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조사하는 경우가 많아, 표본 추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장담할 수 없다. 더구나 이러한 조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중국 정부의 협조가 가장 중요한데 중국 정부가 탈북자 규모와 실태를 조사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조사자와 피조사자 모두 쫓기는 입장에서 비밀리에 진행하는 기이한 조사방식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2) 문화의 개념[7]

문화의 개념은 라틴어 'cultura'에서 온 것으로, 원래는 식물을 경작하고 동물을 사육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후 문화는 인간정신의 계발을 뜻하는 용어로 확대되었으며, 18세기와 19세기에는 일반적으로 인류의 지적이고 정신적인 발전과정을 뜻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톰슨(J. B. Thompson)은 이러한 시기에 나타난 문화개념을 '고전적 개념'이라고 명명하였다(J. B. Thompson, 1990 : 126). 이러한 개념에서 문화란 인간재능의 발전과 세련화의 과정이자 학문과 예술작업의 융합을 촉진시키는 과정이며 근대의 진보적 성격과 연결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19세기 말엽에 문화인류학의 발전에 따라 문화개념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등장하였다. 고전적 의미에서 문화개념은 주로 미적 가치를 목표로 하는 예술의 영역과 인간정신의 세련화, 교양 등을 지칭하고 있어 문화를 '관념적'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반면, 인류학적 연구분야에서는 지식, 규범, 관습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이 획득하는 모든 능력과 습관들의 총체를 문화로 본다는 '사회적' 측면에서 문화개념에 접근하였다.

---

7) 사회변동의 개념 및 이와 관련된 '진화', '전파', '문화변용' 등과 관련된 개념은 본 보고서의 2장에서 논의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제외함.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또한, 문화인류학에서의 문화개념 역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서로 다른 여러 가정들과 방법들에 연결되어 있다. 예컨대 '인류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타일러(Edward B. Tylor)는 "문화 또는 문명이란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풍속 등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간이 획득한 능력과 습관의 총체"(E. Tyler, 1979 : 137)로 정의하였다. 또한, 린드(Robert S. Lynd)는 "동일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하는 일, 행동방식, 사고방식, 감정, 사용하는 도구, 가치, 상징의 총체"로 정의하고, 인류학자 허스코비치(Melville J. Herskovits)는 문화를 "본질적으로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표시하는 신념, 태도, 지식, 금기, 가치, 목표의 총체를 기술하는 구성물"(J. Tennekes, 1971 : 50-51)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문화의 개념과 관련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즉,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라는 낱말을 붙여서 말이 되지 않는 단어가 거의 없을 정도라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문화의 개념과 관련된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적응체계', '인지체계', '상징체계', '구조체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그 개념과 관련된 정황을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문화를 진화론적·생태학적인 범주와 연관시켜 '적응체계'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주로 서비스(Service, 1968)와 해리스(Harris, 1969)에 의해 발전된 개념으로 그들은 문화를 인간집단과 그들의 생태적 배경을 연결시키는 체계로써 보며, 문화변동을 적응과정으로 본다. 또한 생계경제, 기술, 그리고 생산과 관련된 사회체계의 부분들이 적응체계에서 중추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문화를 '인지체계'와 관련된 문제로 이해하는 관점이다(전경수, 1994: 67-71). 인지체계로써의 문화는 일종의 부호(code)와 같은 상징체계, 즉 언어행위와 관련하여 문화를 이해하는 입장이다. 언어행위에 주로 의존하여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은, 문화적으로 중요한 인지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특질들은 그 문화의 표준화된 상징체계 속에서 의사 소통되어야 하며, 그 특질들은 가장 훌륭한 의사소통의 도구인 언어 속에서 부호화되어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문화를 '상징체계'로써의 문화로 보는 관점이다(전경수, 1994: 71-76). 주로 기어츠(Geertz, 1973)에 의하여 발전된 이론으로, 상징은 개념을 전달하는 모든 사물, 사건, 내용, 관계 등으로 이해된다. 문화는 상징의 구성이고, 상징의 인식이며, 상징을 활용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문화유형은 이러한 상징의 체계 또는 복합체가 되는 것으로, 상징은 또한 정보를 전달하는 외적인 원천으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문화유형은 인간의 행동을 형성하는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과정의 제도적 장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이해한다.

넷째, 문화를 '구조체계'로 이해하는 관점이다(오기성, 1999: 30-31). 톰슨은 문화에 대한 '상징체계'로써의 접근이 권력이나 사회적 갈등의 문제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즉 상징형식을 생산하고 수용하는 사회적 맥락과의 연관성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의 상징적 개념은 문화현상이 생산, 수용, 전달되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결여하고 있다는 난점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에 대한 기술적 및 상징적 개념에 추가되어야 할 새로운 개념이 바로 톰슨이 제시한 문화의 구조적 개념(structual concept)이다. 이러한 개념에서 톰슨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현상의 상징적 성격과 문화현상이 항상 구조적인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체화된다는 점이다. 상징형태의 연구로서 문화분석은 역사적으로 특수하고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맥락 및 과정과 연관성을 가지며, 그러한 맥락과 과정은 이러한 상징적인 형태를 생산하고 전달하며 수용하는 과정속에서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이해한다.

이러한 문화의 구조적 개념은 상징적 개념에 대한 대안이라기 보다는 그것에 대한 수정이다. 즉 그것은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맥락과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과정에 대해 고려함으로써 상징적 개념을 수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문화의 구조적 개념에서 '구조적'이라는 용어는 '구조주의자'가 사용하는 개념과 다르다. 후자는 전통적으로 그리고 일차적으로 상징적 형태의 '내적인 구조적 특성'(internal structural features)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톰슨이 제기하고 있는 문화의 구조적 개념에서 '구조적'이란 상징적 형태가 구체화되는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맥락과 과정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문화와 관련된 개념 정의 및 관점을 종합해 보면, 문화란 정신적인 것에서부터, 물질, 제도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문화는 공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경우, 이를 의식하지 못하지만, 문화와 무관하게 잠시라도 삶을 영위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알게 모르게 문화환경의 틀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살아 나가고 있는 것이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